

Ⅲ. 고려의 등장과 발전

주제) 고려의 등장과 태조 왕건의 정책

학 교	
학 번	
이 름	

1. 고려의 성립과정 과정과 관련된 만화의 내용을 완성해 봅시다.

①	②	③	④
후삼국의 성립 - 신라의 쇠퇴로 호족이 난립 ()이(가) 후백제를 건국 ()이(가) 후고구려를 건국	()의 활약 - 송악의 해상세력 호족 출신인 ()이 ()에게 투항 - 후백제의 배후인 나주()을 공략	()의 실정과, ()의 고려건국 ()이(가) 미륵불을 자처하면서 강압적인 정치 실시 - 이에 불만을 가진 호족들이 ()을 왕으로 추대 → 918년 고려 건국	고려의 외교정책 - 신라와는 (친선관계 / 적대관계) - 후백제와는 (친선관계 / 적대관계)
⑤	⑥	⑦	⑧
후백제의 신라 공격 - 견훤이 신라를 공격하여 경애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왕위에 올림 - 고려가 신라를 도와 후백제와 전투 → 공산전투에서 (승리 / 패배)	후백제의 내분 - 후백제 ()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아들간의 다툼이 나타남 - 이 과정에서 신검이 왕위를 차지하고, ()은(는) ()에 유배됨	()유민 고려이주, 신라가 고려에 항복 ()이(가) ()에게 멸망하자 그 유민들이 고려로 이주 -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935)	후백제의 멸망 - 왕건이 후백제를 공격 936년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

※ 위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을 아래에서 찾아서 붙이세요.



2. 고려 태조 왕건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완성해 봅시다.

1) 민생안정책

	◦ () ◦ 오랜 전란에 지친 백성들을 위해 조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 ◦ 군대의 규율을 엄하게 하여 군인들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단속
--	---

2) 호족 융합정책 : 고려 건국 당시 존재하고 있던 호족에 대한 (유화정책 / 강경책) 실시

()	◦ 유력 호족의 딸들과 혼인관계를 통해 호족과 왕실간의 유대관계 강화 ◦ 이 과정에서 왕건은 29명의 부인을 얻었으며 자식들간의 근친혼을 통해 왕실의 혈통을 유지하고자 함
-----	--

()	◦ 유력호족이나 공신들에게 왕씨 성을 내려주어 왕건과 가족관계임을 증명 ◦ 왕씨 성 외에도 왕이 직접 호족이나 공신들에게 성씨를 내려주어 그들의 지위를 인정
-----	--

()	◦ 호족들이 고려에 투항할 때 그들의 세력의 세력을 흡수하지 않고 그들의 세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통치권과 지배권을 인정 ◦ 고려 역사에서 최초의 사심관으로 임명된 인물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으)로 왕건은 그를 ()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함.
-----	---

()	◦ 호족들의 자제 중 일부를 수도에서 교육시키겠다는 명목으로 개경에 들어와 공부하고 살도록 함 ◦ 호족들의 자제를 양성하여 관리로 삼고, 인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 외에도 호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인질로서의 의도도 가지고 있음.
-----	--

3) 북진정책 : ()에 대한 계승의지를 분명히 함

◦ 원래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나 옛 고구려의 수도인 ()을 서경이라 부르며 중요시하고 북방으로의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	◦ 고구려의 후예인 ()가 멸망하였을 때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고려로의 귀순을 도움
	
◦ ()을 멸망시킨 ()을 적대시 ◦ ()이 친교를 위해 보낸 사신과 선물(낙타)을 거절(만부교 사건)	◦ 실제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이남까지 고려의 영역을 확장함.

4) 빈민구제정책으로 측창을 설치하여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식량을 빌려주기도 함

5) 후대 관리들에게 내리는 교훈인 정계, 계백묘서 작성, 후대 왕들에게 내리는 교훈으로 ()를 작성함

※ 각 내용에 알맞은 그림을 찾아 붙이세요.

호족의 자식들은 공부도 시켜주고 관직도 수여하지만 관직을 맡아도 관리를 하지 않고 관리를 하더라도 관리를 하지 않는 관리를 하더라도 관리를 하지 않는 관리를 하더라도 관리를 하지 않는 			호족 딸들과 많이 결혼해서 좋은 관계로 지내려지. 
고려의 수도 고려의 수도 고려의 수도 고려의 수도 고려의 수도 고려의 수도 고려의 수도 고려의 수도 고려의 수도 고려의 수도 	서경은 고려 제2의 수도 	우린 발해에서 왔어요 	

※ 각 내용에 알맞은 역사자료를 찾아 붙이세요.

왕순식(본명 김순식)은 명주 사람이다. 명주의 장군으로서 오래도록 항복하지 않자, 태조가 걱정하였는데 (중략) 김순식이 마침내 자신의 말아들 수원을 보내어 귀순 의사를 밝히니, 태조가 크게 기뻐하여 왕씨 성(姓)을 내렸고 토지와 집도 하사하였다.

태조는 "취민유도"를 내세워 농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태조가 고려를 건국하고 3~4일 만에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최근 백성들을 혹독하게 수탈하여 백성들의 삶이 어려우니 나는 백성들의 세금을 1/10만 받는 제도를 실시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으며, 건국 후 3년동안은 백성들에게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고려에서는 향리(지방관리)의 자제들을 뽑아 개경의 볼모로 잡고 출신지 일에 대해 고문역할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이들을 기인이라고 하였다.

신라의 경순왕이었던 김부를 정승으로 임명하여 지위를 태자보다 위에 두고, 해마다 녹봉 1,000석을 주었으며 별도로 살 수 있는 궁궐을 지어 하사하였다. 그리고 김부가 항복하였기에 신라국을 폐지하고 그 수도를 경주라 하였으며 해당 지역을 김부의 식읍으로 하사하였다.

장화왕후 오씨는 원래 나주 사람이다. 아버지는 오다련군은 대대로 나주의 목포에 살아왔다. 왕후가 일찍이 나루터의 용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놀라면서 깨어 부모에게 말하니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오래지 않아 태조가 수군장군으로 나주에 출진하여 목포에 정착하자 아버지 오다련군은 태조를 섬김껏 도와 나주를 정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